

광주전남불교환경聯 대표 이취임

신임대표 시각 스님... 에코템플 만들기 등 추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1월 28일 광주 수자타에서 '2015정기총회 및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대표로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사진)의 취임행사를 열었다.



“시각 스님은 물러나지만 공동대표로 뜻을 모아 불교환경연대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 NGO단체로서의 자기역할과 소명을 다해가는 데 미력하나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회고와 바람을 말했다.

행사에는 설은 스님(순천 선암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300여 대중에 참여했다. 오후 4시부터 정기총회를 통해 감사보고·2015년 사업보고·2016년 사업계획·신임 상임대표 추인 등을 결의했다. 이어 5시부터 상임대표 이·취임식 행사와 회원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환경연대는 불교의례에 이어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에 200만원 상당의 환경책 160여 권을 전달하고, 관련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총회자료를 통해 1080회원사업, 회의체계시스템화, 에코템플 만들기 사업, 환경법회, 탈핵 및 대안에너지 활동사업 등 2016년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시장

이날 취임한 시각 스님은 광주 빛고을 관동회 봉축기획단장을 3년간 이끌고 있으며, 태고종 총회의원, 태고종 광주전남 총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에 앞서 8년간 상임대표를 역임한 법일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상임대표에

임실 6탄약창 장영사 수계법회

전북 내 군 법당 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임실 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가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 장영사는 11월 29일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부장, 강석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와 위문공연을 펼쳤다.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실천행을 강조했다. 스님은 호국 장영사가 나란다 축제에서 개인과 단체 모두 대상을 수상한 것을 치하하고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박상용 대위 외 135명의 새내기 불자들은 도영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심신계를 수지하고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며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도영 스님은 “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다”며 “불교는 세 살 먹은 어린이라도 알 수 있지만 여든 먹은

강천사, 기도 수익금 불우이웃에 기탁

순창 강천사가 천일기도를 입재하며 발생한 기도수익금 전액을 지역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11월 27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황숙주 군수에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3백만원과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라면 100상자(2백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강천사는 지난 11월 21일 '강천사 예가람 복원봉사 기원 천일기도'를 입재하고 매일 네 차례 정진하는 사본정진이 진행 중이다. 강천사는 천일기도입재를 계기로 다양한 도량정비를 통해 사격을 일신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종고 스님은 “지난 9월 강천사에 부임한 후 천일기도를 입재했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기도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에 동참하겠

미륵사지 석탑 사리 다시 제자리로

금산사, 미륵사지 보수 현장에서 사리봉안식

지난 2009년 1월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보수정비사업 중 발견된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리장엄이 다시 미륵사지 석탑에 봉안됐다.

전라북도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시, 금산사는 12월 3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에서 ‘불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미륵사지 새 희망을 염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봉안식에는 사리 13과, 불사리 장엄구 복제품 8건 1,036점, 수리기 1점, 발원문 1점 등 총 11건 1,051점이 봉안됐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주지 성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전회 스님들을 비롯한 스님들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한응재 익산시장 대행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열린 불사리 친견 및 이운 고불식에서는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전회 스님들의 이운의식에 이어 사

리친견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자들의 친견을 마친 사리 13과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등 금산사 대중스님들에 의해 사리장엄구에 봉안의식을 마쳤다.

이어 불사리와 사리 장엄구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따라 만장각 각종 번을 앞세우고 익산불교신도회와 포교사들에 의해 봉안됐다.

사리 13과·수리기 등 1천명 참석

“평화·자비로운 세상되도록” 발원

해 미륵사지 석탑 현장으로 이운됐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백제인들은 미륵사를 세우며 부처와 진리가 하나되는 불국정토를 발원했다”며 “불국정토는 나와 이웃, 왕과 백성, 겨레와 국가가 하나되는 평화로운 세상이자 우리가 개척해야 할 희망찬 미래이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 재봉안을 계기로 온 누리에 평화롭고 자비로운



전라북도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시, 금산사는 12월 3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에서 ‘불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세상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사리를 다시 봉안하면서 우리는 이 탑이 오래도록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제인들이 이 탑을 세웠을 때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처음 해체공사를 시작한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는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 중 △금동제 사리 외호(金銅製舍利外壺) 1점 △금제 사리 내호(金製舍利內壺) 1점 △금제 사리 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 1점 △은제 관식(銀製冠飾) 2점 △청동합(靑銅合) 6점 △각종 구슬(金, 진주, 유리, 마노) 9,700여 점 등 총 9,9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전 콘크리트를 제거한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조계산 중심으로 송광사 위상 재조명해야”

송광사, 3일 순천대서 암자 정비활용 세미나

전란 거처며 폐사 다수 송광사·암자 관계 규명해야

‘명승종합정비계획’ 우선 필요



조계총림 송광사는 12월 3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송광사 산내 암자의 성격과 정비활용’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유명사찰에는 의례 산내암자가 있기 마련이다. 본찰과 더불어 수 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동안 같은 수행도량으로 이어온 암자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뤄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송광사에도 원래 16개의 암자가 있었지만 근래 8개 암자만 있다. 이에 대한 고증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는 12월 3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송광사 산내 암자의 성격과 정비활용’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무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광사에는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발굴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학술대회는 △‘송광사 산내

암자의 장건과 변천’에 대한 배상현(동서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장) △‘송광사 산내 암자의 현황과 유적 유물’에 대한 최인선(순천대학교 교수) △‘송광사 산내 암자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임석구(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송광사 보조암자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에 대한 이수경(민족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과장)의 주제발표와 김명진(경북대학교 강사), 엄기표(단국대학교 교수), 장여동(순천시 학예연구사), 이은석(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의 토론을 진행했다.

배상현 연구실장은 발표문을 통해 “송광사는 16개 암자가 있었다는 구전이 있지

만, 유물로는 15개의 암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란의 피해와 복구되지 못한 암자를 봤을 때 더 많은 암자가 존재했을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임석구 연구실장은 “송광사 암자터의 정비와 활용은 개별 암자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전제는 조계산을 중심으로 성립된 한국 불교의 역사와 그 안에서 송광사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송광사와 암자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시장

고창군종합복지관 농촌 체험프로그램

농촌 체험프로그램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오던 2015년 지역 맞춤형복지프로그램이 11월 김장나누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지역맞춤형복지프로그램은 농촌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감소해가는 농민과 고령화로 인해 정적인 마을에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과 유아의 소통 및 자연친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70명의 주민이 참여한 이번 맞춤형 프로그램은 지역 내 6~7세 유아 82명을 대상으로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형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매월 2회씩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32명), 해리어린이집(32명), 대산동화나라어린이집(20명) 등 6세~7세 유아가 참여하여 마을주민과 1대1, 또는 1대2로 각각 짝이 되어 개별 텃밭 가꾸기, 자연관찰, 고무마, 아재 수확체험, 김장 등 다채로운 농촌 체험을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소유한 농지 무료임대와 무료 수확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쟁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